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70 YEARS 1953-2023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제35회 호렙산기도회

6월 5일(월)~7월 14일(금) 새벽 4시 45분, 40일간 진행

한국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의 효시가 된 호렙산기도회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및 광림남, 서, 북 교회는 물론 광림의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교회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호렙산기도회는 1989년 시작되었다. 당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많은 사회문제, 정신적 공허함, 급변하는 세계정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기도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자는 의미에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시나이 반도에 솟아 있는 거룩한 산 호렙은 모세가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은 곳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곳이다. 광림은 '숲속에 타는 불꽃의 교회'(Burning Bush Church)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호렙이라는 믿음으로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도를 통해 개인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비롯한 세계 평화의 문제, 신냉전시대의 갈등,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재해와 테러 등의 문제, 북한의 핵 위협과 국내의 정치적 분열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소외된 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0일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번 호렙산기도회의 주제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Open heaven's gates with prayer)"(왕상 18:37)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여러 시련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석 담임목사는 매일 새벽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이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공동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자 한다. 광림교회 본당, 지교회는 물론, 모스크바, 야마가타, 호치민 등 해외 미션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개인이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일산광림교회, 상계광림교회, 광명광림교회, 광림동교회, 신애교회 등은 자체적으로 같은 기간에 호렙산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렙산기도회 중 매주 토요일 교회학교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출석 스탬프, 안수 기도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선교국은 매주 토요일 호렙산기도회 후 교육선교와 해외선교를 위한 연합기도회, 8월 26일에 있을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40일간 광림의 모든 성도의 삶은 호렙산기도회에 맞춰지게 된다. 매일 새벽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연주팀, 안전한 주차를 위해 봉사하는 기드온선교회, 예배위원회와 방송팀, 전세계 생방송을 위해 애쓰는 영상팀, 중보기도위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의 헌신과 기도 속에 호렙산기도회는 더욱 풍성한 영적 축제가 될 것이다.
호렙산기도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마음속의 호렙산기도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2 광림의 강단 눈물로 부르짖으라
3 광림 스토리 23년 광림교회 선교사역
4 믿음의 현장 의료선교회 건강강좌 시리즈(1)
5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 소식
6 다음세대 교육국 풋살대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눈물로 부르짖으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5)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는 기록은 세 군데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가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흐느껴 우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셔서, 장차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비통한 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인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눈물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두 눈에 누선(눈물샘)을 만드시고 그 속에 눈물이 고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인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나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인간의 눈물은 결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깊은 사랑과 순수한 동정심의 표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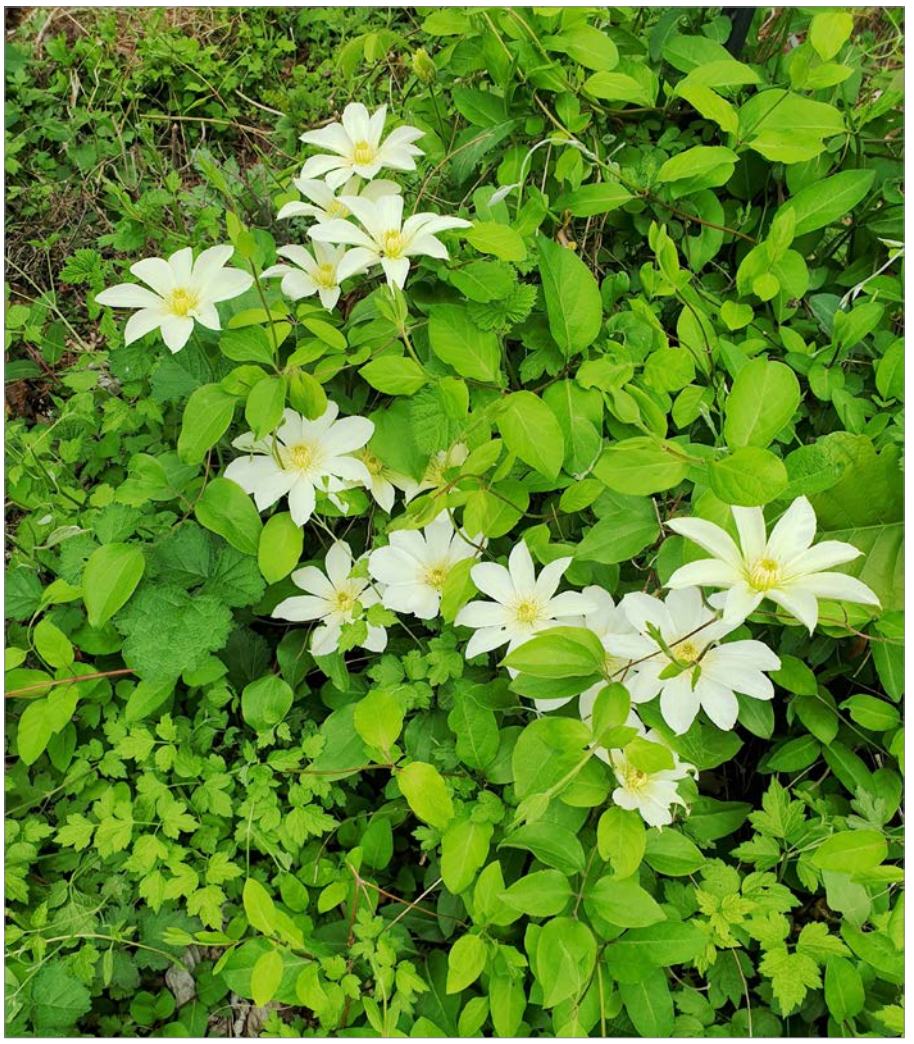
눈물은 인간이 흘리는 가장 진한 액체입니다. 눈물과 피와 땀은 인생의 값진 3대 액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슬픔의 눈물이 있고, 때로 감격의 눈물도 있고,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냉철한 머리에 따뜻한 심장을 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마음이 있고, 더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생의 진실한 표현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둘째, 눈물은 인생을 정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실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현대 목회상담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곧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충격이나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울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큰 심리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울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요한복음 11:17~44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달아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제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의 경험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중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Johann W. von Goethe)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 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뜻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급한 문제를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교만하고 추했던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깊은 눈물의 기도를 마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추한 인생을 정화하고, 삶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눈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마 5:4)고 했습니다.

성서에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으나, 나중에 총리대신이 되어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혈육과 만나면서 요셉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범죄 때문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눈물로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17)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 이것이야 말로 인간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통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전혀 새로운 축복과 위로와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전해

5월 16일, 국민의힘 기독인회 조찬기도회



<국민의힘 기독인회> 5월 조찬기도회가 5월 16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기독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의 모임이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지성호 국회의원의 사회로 송석준 의원의 대표기도와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조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둠 속에서 회복을 꿈꾼 사람들'(스 2:68~70)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당직자들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꿈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빛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쓰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회복을 꿈꾼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의원님들 300명이 남은 자가 되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둠의 역사를 벗어나 빛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민족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14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며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과 원산 대부흥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변화되고, 학교와 병원이 설립되며 여성 인권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기독사학이 시작되며 당시 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던 것 같이 이 국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세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1,500km를 걸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2세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도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축제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국민의 정당으로서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며 참석한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큰 말씀의 울림을 전했다.

2부 행사에서는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기독인회장)이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2023년 광림교회의 선교사역

교회창립 70주년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블라디보스토크 광림미션센터


동탄광림교회

2023년, 교회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친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표어에 따라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란 단지 교회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이 선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세계 8개국에 10개의 미션센터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광림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잠비아에 첫 번째 아프리카 미션센터 봉헌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 29일(월)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 세워지는 미션센터는 미국 웨슬리신학교, 영국 OCMS(옥스퍼드선교대학원)와 함께 잠비아 광림신학교를 개교하고 목회자 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독교 국가이지만 신학교육의 부재로 많은 이단교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현재 4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학생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조혼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의료인식 개선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4,000여 평의 대지 위에 1차로 3개 동의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숙사, 채플 등을 추가로 건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미션센터도 완공되어 봉헌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매우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목회자 양성과 러시아 현지 교회의 목회자 더 나아가 훗날 북한 선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국내에는 창립 70주년 기념 성전으로 동탄광림교회를 건축 중이다. 현재 외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내장공사 중이다. 지하에 있는 성전은 약 300석 정도로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규모이며 2층에 식당과 다용도 공간, 3층에 교육실과 100석 규모의 소예배실이 있다. 이 외에도 각 선교구별로 자매결연을 한 선교지 및 기관을 위해 기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맺어지는 선교의 열매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은 기도와 헌신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광림교회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지구장 세미나(2차)
5월 22~23일 속초에서 지구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스피스 수료식
5월 23일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마쳤다.



전직 미연방국회의원 협의회
5월 14일 주일예배 참석했다.

담임목사 동정



5/14	어버이주일
	상계광림교회 장로취임예배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5/16	국회 기독인회 조찬기도회
5/21	선교주일
	광림남교회 선교주일
	유아세례 및 음악회
5/22~23	지구장세미나(2차)
5/25	미국 듀크대 신학대학원
	학장 일행 면담
5/27	전교인체육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남선교회

안산 만나복지원 찾아 사랑나눔 행사 가져



남선교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5월 14일 주일 오후 안산에 소재한 만나복지원(원장 공성혜)을 방문하여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만나복지원은 30여 년 전 현재 공성혜 원장의 어머니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공 원장은 학창시절 자원봉사로 옆에서 돕다가 어머니 사후에 이를 계승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공 원장은 "현재 이곳에는 2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복장애인으로 시각장애가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와 정신장애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 40대가 넘고 대부분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재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며, 장애인 인가시설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어려움도 많은데 광림교회에서 찾아와 주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재 복지원에는 5명의 봉사자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기초생활교육과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도서관 방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과 예배 등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복지원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최종식 권사(광림교회 사업본부)는 "30여 년 전에 아는 목사로부터 이곳을 소개받아 개인적으로 찾아 왔었는데, 마침 광림교회에서 후원시설로 선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경찰이 이곳으로 데려오기도 하며,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병원치료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전임 원장 때도 그랬고, 전심으로 이들을 돌보는데 신기할 정도로 후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선교회에서는 결혼식 때 '화환 대신 쌀'로 얻은 수익금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시설을 선별, 생필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도 생필품은 계속 보내 주었는데, 이번 직접 방문 행사에서는 1, 5, 7선교구 성도들도 함께 동참했다.

박기연 장로는 "남선교회 업무 중에 나눔이 있는데 이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안산 만나복지원 외에도 <춘천 나눔의 집>과 <김포 은빛마을>도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런 면도 있지만 분기별로 사랑나눔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나사렛성가대 청년부, 사랑과 존경을 담아 어버이주일 섬겨





나사렛성가대와 오케스트라는 주일 9시, 2부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2시간 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연습 후 대예배실로 올라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찬양 연습 전 잠시 쉬는 시간에 떡과 생수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나사렛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청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두 가지를 의논하며 '이른 시간에 모이는 대원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어버이주일을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를 고민하던 중 나사렛성가대만의 문화로 이번 어버이주일을 섬기자는 한 청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가대에는 경조사 또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애찬으로 떡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20~30대 나사렛 청년들은 십시일반 공경하는 마음을 모아 나사렛성가대 아버지, 어머니들을 섬긴다면 뜻깊은 주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떡과 함께 카네이션 생화 한 송이씩을 드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배 직후 생화 150송이 가량을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심만을 담는다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재논의 끝에 과일컵과 그 위에 카네이션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떡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2주간의 준비 끝에 5월 14일, 어버이주일 예배 후 150개의 떡과 과일을 성가대원들께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모두가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어버이주일을 준비하며 지난 세월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을 기도로 눈물 흘리며, 찬양으로 살아왔을 성가대 어른들의 믿음이 생각나며 진심을 담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랑의 실천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요, 하나의 공동체 됨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로 부르신 뜻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황예찬 성도(나사렛성가대 청년부장)

의료선교위원회 건강강좌 시리즈 ❶

혈관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성인 질환들



광림교회 의료선교회(위원장 정하원 장로)는 창립 70주년 기념 의료선교회 건강강좌 시리즈를 열고 있다. 성도들을 위해 총 10회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월 2회,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본당 지하 1층 의료선교회 상담실(양의 문)에서 진료과별 강의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강의는 5월 7일, 12시 30분 내과 전문의 문찬수 장로가 <혈관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성인 질환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 성인에게 혈관 합병증을 잘 일으키는 3대 질환은

① 고혈압 : 뇌졸중, 협심증, 심비대, 심방세동, 만성심부전, 망막박리를 일으킨다.

②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을 일으킨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LDL 콜레스테롤 환자는 체중 조절과 운동 및 식이요법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치료를 거부하며, 오메가 3만으로 모든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므로 치료율이 48%로 낮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관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며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든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 자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③ 당뇨병은 뇌졸중, 협심증, 만성 심부전, 망막박리, 발가락 괴사를 일으킨다.

④ 뇌졸중 및 협심증 같은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3대 성인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다.

구 분	환 자	약복용률	조절율
고혈압	1,200만명	79%	48%
고지혈증	1,100만명	48%	41%
당뇨병	600만명	62%	30.5%

2. 3대 질환에 의한 혈관 합병증은

① 협심증: 혈류흐름이 빠른 동맥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에 의해 죽상경화가 생겨서 협심증을 일으킨다. 이때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항혈소판제로 치료한다.

② 뇌졸중과 심부 정맥혈전(deep vein thrombosis): 혈류 흐름이 느린 정맥에는 혈액응고인자에 의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부 정맥 혈전을 일으킨다.
이때는 항응고제로 치료한다.

③ 심혈관 질환에는 항혈소판제 치료를 평생해야 하고, 뇌혈관 질환과 하지정맥 혈전 질환에는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한다.

문찬수 장로(의료선교위원회)

광림남교회

선교주일 특별 저녁예배





광림남교회는 5월 21일(주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특별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유아세례예식 및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자선음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유아세례예식 가운데 총 7가정, 8명의 아이들(김시엘, 화이레, 화예준, 설연우, 김제이, 김지원, 문주원, 문시온)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창세기 48장 15~22절 '축복의 가계도표를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전하면서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흘려보내며 선교하는 삶을 강조하셨고, 유아세례를 받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는 총10팀(트리니티 찬양단, 교회학교, 이엘 트리오, 정광빈 집사, 김은희 집사, 새하늘 중창단, 김지은 성도, 탁영인 성도, 이주연 교수, 고현아 교수)이 난타, 합창, 중창, 찬양, 연주,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튀르키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안디옥개신교회에 다시금 예배의 터전이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림남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였고, 315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드리고 자선음악회에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진 피해 잔해를 치우고 현장을 복구하는 튀르키예에 다시금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안디옥개신교회가 재건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초대교회의 안디옥교회처럼 튀르키예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전도사(광림남교회)

4선교구

커피향과 함께한 남성연합속회





지난 5월 11일(목), 잠실 석촌호수 송리단길에 광림교회 4선교구 남성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감미롭고 그윽한 커피향기를 따라 모인 그곳은 12교구 이정식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 '커피공작소'였다.
사업장을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정식 성도의 바람을 듣고 4선교구 정용식 목사는 10, 11, 12교구가 함께하는 남성연합속회를 계획했다.

커피공작소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로 가득 찼다. 기타 연주와 함께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성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 힘찬 찬양의 목소리는 카페를 가득 메움과 동시에 거리를 지나는 이들에게도 전달됐다. 어느새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고, 속회공과 19과 시편 78편 1~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예배가 시작됐다.
정용식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버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뒤를 이어 10교구 조태영 권사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가 더해진 찬양을 들으며 4선교구 남성 성도들은 마음을 합해 뜨겁게 기도했다.

정용식 목사는 "예배를 위해 장소와 커피 선물을 제공해주신 이정식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커피향 가득한 곳에서 은혜스러운 예배시간이었고, 경건한 남성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4선교구 분들 언제나 존경합니다"라는 인사로 속회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이정식 성도가 직접 로스팅해서 만든 향기로운 커피와 다과류를 즐기며 담소를 나눴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커피 원두를 선물로 제공했다.

연합속회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한걸음에 달려온 11교구 권기준 성도는 "지난 이틀기도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잊지 못할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속회예배가 주일예배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한혜선 기자

목회현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장성호 목사(안디옥 개신교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실때는 구약을 인용하는 때이다. 인용된 것은 신명기 8장 3절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진 후 이 두 말씀을 보니 이 구절을 따로 보면 굉장히 다른 말씀처럼 와닿는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강조가 보이는 반면, 신명기의 말씀에서 묵상되는 것은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부분이다. "알게하려 하심"이 주된 목적이라고 본다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다. 너무하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 핵심은 만나인데 이것이 "알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던" 것이란다.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진 후에 "알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던" 분들에게 연락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 만나를 받았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만나를 먹이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왠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송 제목이 생각났다. 교회는 말만 형제지만 맨날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었는가? 더 가지려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 가나안 성도들이 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왠일인가 내 형제여!!! 알지못하며 알지도 못하던 형제 및 자매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알게 하려 하심" 이라는 말씀이 깊게 박힌다.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나중에 또 의심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6글자가 그대로 뇌리에 박힌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도 작가도 기억에서 희미 해졌지만 제목은 기억이 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지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나는 6글자는 잊지 못할 것 같다.
"알게 하려 하심."

신앙 간증

하나님을 찾으라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새가족 교구 속장과, 유년2부 교사를 맡고 있는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경건생활은 너무 싫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주일예배에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삶을 살다가 성인이 된 후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에 빠져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3년 전쯤 실연을 당하고, 준비하던 도전에도 실패하고, 또 오랜 친구와 관계가 크게 틀어져서 심적인 지옥에 빠졌습니다. 이때 몸은 힘들었고, 마음은 아팠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할 곳도 없었고, 혼자 일어날 용기도 없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어머니께 가서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뜸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를 해서 먹고 살지를 물어본 것이었는데 어머니의 대답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어머니의 조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쌓아 두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축복들을 저와 가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씻기시고 먹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성민 속장(청년부)

청년부

광림교회 청년부 LBS 봄학기 종강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LFC 청년공동체


신약개론 강의


라이프코칭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LBS 찬양 시간

광림교회 청년부 2023년 봄학기 L.B.S(LFC Book School)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모여 LBS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눈 후, 6개의 강의실로 흩어져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봄학기 LBS에는 6개의 다양한 강의가 열렸고 성경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 강의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오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청년들을 위해 맥스 루케이도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읽고 나누는 '우불치'(우울함과 불안함을 치료하기)세미나와 '팀켈러의 기도'를 함께 읽어 나가고 실천하여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기도의 삶' 세미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라이프코칭'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자매는 "이번 LBS '라이프 코칭' 강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문제를 문제로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심명진 형제는 "신약개론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이 젖 먹는 아기 신앙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LBS를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장성한 자의 신앙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앎(지)과 감동(정), 실천(의)의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강의로 LBS가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LBS를 통하여 광림교회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전도의 통로, 교회학교 풋살대회

광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제3회 KLCS(KwangLim Church School) 풋살 대회가 사회봉사관 3층 스포츠 콤플렉스 풋살장에서 열렸다. 풋살 대회는 지난 5월 14일과 21일 예선전을 치렀고, 오늘 오후 4시에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저학년 팀과 고학년 팀으로 나뉘어 9팀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총 45명의 친구 중 17명의 새 친구가 이번 풋살 대회를 통해 교회로 발걸음 하였다.

임재철(교육1부)목사는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에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6)는 말씀을 전하며, "풋살 경기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며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활동을 잘 배워나가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 팀은 5명의 선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는 전반 10분, 휴식 10분, 후반 10분으로 진행되었다. 심판은 축구 심판 자격증(3급)을 지닌 임재철 목사가 보았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풋살 경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해 줄 해설자가 있어서 관람하는 재미가 배가 되었다.
지난 2주간 9팀이 예선 경기를 치렀으며, 오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결승전 후에는 학부모 특별 풋살 경기가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피드건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발차기 실력을 겨룰 예정이며, 푸짐한 선물 증정식도 기다린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는 이번 풋살 경기에 온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매 경기 커피와 과봉을 후원하였다.
풋살 대회에 3회째 참석하고 있는 홍성겸(초등1부)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팀이라 서로를 배려하며 경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라며 포부를 다졌다.
여자 선수로서 꾸준히 모든 풋살 대회에 참가해 온 권단비(초등1부)는 "SSA(Shining Saturday Activities)에서 오빠들과 풋살을 배워와서 다른 팀과 하는 경기가 아주 힘들지 않았어요. 승부에 상관없이 즐기면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우승하지 못해도 괜찮아요."라며 경기 참가 소감을 전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KLCS 풋살 경기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전도의 통로로써 귀하게 쓰임 받는 풋살 대회의 발전이 기대된다.

박희윤 기자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5

미국 남감리회 첫 번째 조선 선교사 리드 목사



Reid, Clarence Frederick
한국명 이 덕(李 德)
1849. 7. 19 ~ 1915. 9. 7

미국 감리교회는 1844년 노예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1939년 다시 남북 감리교회가 통합되기 전까지 조선 선교도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각각 선교사를 파송하고 독자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미감리교회는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와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던 민영익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했으며, 1885년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가족의 내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중국 상해에서 망명 중에 1887년 4월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치호는 미국의 밴더빌트대학과 에모리대학에서 유학했을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선교부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895년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E.R. Hendrix) 감독과 리드 목사가 내한하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목사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감리회의 첫 번째 조선 선교사가 된 리드 목사는 미국 뉴욕주의 신실한 의사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7세에 부친을 잃고 삼촌 댁에서 성장했습니다.
1874년 전도사로 임명된 후 같은 해 9월 남감리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878년 켄터키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상해에 파송되어 1886년에는 중국선교연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17년간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1895년 조선 방문 후 고종황제를 만나 조선 선교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듬해 중국에 있던 가족들과 내한하였는데, 이 때 먼저 조선에 와있던 미감리회의 스크랜튼 선교사가 리드 선교사는 잘 정착하고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897년 6월 21일 리드 선교사의 집에서 처음으로 공중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후에 광희문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1899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조선 땅에서의 짧은 선교를 마감해야 했지만, 그가 뿌려놓은 선교의 씨앗은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남감리회의 선교로 확장되었습니다.

광림교회도 광희문교회의 지교회인 광희문제2교회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리드 선교사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조선을 잊지 못하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이위만(W.T. Reid, M.D, 李慰萬) 의사는 1907년 조선에 들어와 개성에 병원을 세우고 1928년까지 의료사업과 복음전도 사업에 전력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가 돼요"

총력전도주일 간증



총력전도의 달이 시작되자 "다니엘기도회와 전도로 영혼구원에 힘쓰자"는 전도사님의 권면에 힘을 내어 예배의 자리마다 열심히 참석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리라 다짐하며 첫날 노방전도에 함께했다.
하지만 전도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대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피했다. 포기하고 싶어졌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 영혼구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순종해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에도 응답해 주셨다. 전도에 실패했다는 패배감을 갖고 참여한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내 마음에 전도대상자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나아간 노방전도의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했던 전도대상자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주일에 교회에 나와보겠다는 다짐을 받게 되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억지로라도 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게 깨닫게 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피해서 가든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동안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친척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저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였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순종에도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친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번 총력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을 주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실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작은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는 통로가 되었다.
이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니엘기도회를 주관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믿음의 교구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김혜경 권사(6교구)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죄란 무엇인가]
마크 존스 지음

오늘날 우리는 죄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진상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고, 심지어 죄를 은혜로 둔갑시킨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알 수 없다. 사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쉬운 개론서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죄의 본질과 그 독성에 대한 철저한 분별과 탐구를 가져다 준다. 현재 복음주의 문화권에서는 죄의 본질을 규정하는 어휘들이 사라졌으며, 죄의 윤리 역시 심리적인 관점에서 재정되거나 죄의 성립 여부가 정해진다. 그러나 죄의 본질에 대한 무지는 우리 영혼을 철저히 몰락시킨다.
이 책을 통해 삶의 내부와 외부, 과거와 미래에 두루 퍼져 있는 죄의 위험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성령님을 추구하라]
A. W. 토저 지음

성령님에 대한 책은 다양하고, 그분에 대한 논쟁도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성령님을 아는가? 그분을 경험했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분을 추구하는가?"
A. W. 토저는 일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분투한 사람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삶의 놀라움을 맛보았던 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린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영원 속에 계신 성령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1



예수와 열두 제자의 최후의 만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17~1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28절)



▲ 최후의 만찬_ 세바스티아노 리치의 작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마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내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산헤드린의 최고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유월절 기간에는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에게 가서 '네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말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지시를 따르니 과연 예수가 말한 그대로였다. 유월절 만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수는 그날의 만찬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신(神)인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다.

해가 진 후에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다. 긴 식탁의 가운데에 예수가 앉았고, 열두 제자는 함께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불에 구운 양고기와 누룩 없이 만들어 부풀지 않은 빵과 쓴나물, 붉은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다.

모두가 식사하는 중에 예수가 말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게 음모를 꾸미는 무리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예수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모두 '저도 아니지요?'라고 서둘러 물었다.

그때 예수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내가 배반당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의 말을 가룟 유다도 알아들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를 배반할 준비가 되었다.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예수에게 말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를 바라보며 예수는 말하였다.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한 일을 하여라."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올리브산 겟세마네로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예수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달라고 하여 허리에 둘렀다. 그 다음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그는 거부하며 말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존경하는 스승에게 차마 자신의 발을 닦이는 것이 황송해서 거절한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말하였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베드로에게 답변한 예수는 모든 제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한다. 복된 삶을 살아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예수는 다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들과 새로 맺는 피의 계약이다." 예수는 빵에 이어 붉은 포도주를 잔에 부어 한 사람씩 받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찬송을 부르며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갔다.

광림뉴스레터



◀ **하나님의 어린양_**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린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말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어린양이라는 의미이다.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줄에 묶인 양'을 묘사한 것으로, 17세기 스페인 세비야에서 활동한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 그렸다. 그는 어두운 배경에 정물과 인물들을 그려 넣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 그림도 모든 군더더기를 생략하고 양 한 마리만 그려 넣어 강한 여운을 남겼는데, 마치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설파하는 듯하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작품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